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遮那三尊佛坐像의 重修에 관하여

이 희 정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삼존상 중수내용과 조각승
進悅 |
| II. 三尊像의 현상 | V. 맺음말 |
| III. 記錄에 보이는 삼존상의 造成과
重修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I. 머리말

부산 금정구 금정산에 위치한 범어사에는 의상의 창건설을 비롯해 화엄십찰로¹⁾ 오랫동안 화엄종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었던 사찰임을 보여주는 비로전이 있다. 이 전각에는 화엄 주존인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양측에 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 목조불상으로 긴 상반신과 적당한 다리 폭의 신체비례에서 오는 자세의 안정감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옷주름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부드러우면서도 단아한 얼굴은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매우 닮아 같은 조각승의 의해 조성되었다고 추정될 정도이지만 신체 비례라든지 옷주름 등에서는 양식적 차

1) 『三國遺事』卷4, 義湘傳敎 “…湘이 十寺에 명을 내리어 敎를 傳하니 太伯山, 浮石寺, 原州의 毗摩羅寺, 伽倻의 海印寺, 毗瑟의 玉泉寺, 金井의 梵魚, 南嶽의 華嚴寺 등이 그것이다…”

이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범어사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이하 비로전 불상)과 관음전에 독존으로 봉안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이하 관음전 불상)의 유사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목서명이 관음전 불상의 대좌 상면에서 발견되었다. 즉, 관음전 불상의 조성시기, 시주자 그리고 조각승 진열(進悅)이 조성하였다는 내용 등과 아울러 동(同)시기에 비로전 불상이 진열에 의해 중수되었다는 내용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진열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인물로, 경기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작품이 확인된 바 있다.²⁾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불상중수가 조성후 50~8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 보면³⁾ 비로전 삼존상은 관음전 보살상보다 앞서 조성되었던 것이 분명하며, 현재의 모습과 달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조사중 사찰측에서 비로전 불상의 '重修塗金記'를 제시하였는데, 원본의 소재는 분명치 않지만 이를 옮겨놓은 기록물이다.⁴⁾ 비로전 불상의 중수 기록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범어사 다른 전각의 불상 조성과 동참한 승려들의 내용이 『梵魚寺誌』와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보면 비

2) 최선일, 2004,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僧 進悅」, 『美術史學研究』244, pp. 171~193.

이희정, 2007, 「咸陽 安國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東亞文化』2·3號,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pp.705~725.

3) 최선일, 2006, 「朝鮮後期 彫刻僧의 活動과 佛像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41~143.

4) 2002년 범어사 문화재조사때 사찰측에서 전해준 기록물이며, 복장물을 꺼낼 당시 범어사에 주석한 스님이 원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어떤 이유로 복장물을 개봉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당시만 해도 조선후기 불상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사진 자료도 남아 있지 않고, 원본의 재복장, 혹은 분실의 여부조차 알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로전 불상의 중수기록임에 틀림없다고 추정된다. 무엇보다 1638년이라는 제작시기는 비로전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관련해 참고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로전 삼존상 각 개체의 현상을 파악해 본 다음, 중수도금기에 대한 소개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리고 비로전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통해 원특징과 이와 구별되는 어떠한 새로운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지 중수의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II. 三尊像의 현상

비로전내 중앙 수미단에 각각 팔각대좌와 연화좌를 구비하여 삼존상을 봉안하였다(그림1).



<그림 1>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전체 전경 및 봉안상태

본존인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중심으로 양측에 보살상이 앉았으며(<그림 1>), 규모가 작은 보살상은 본존상과 격이 다름을 보여주는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가운데 124.6m 높이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그림2)은 허리는 세우고 어깨로 부터 서서히 구부렸으며, 어깨를 앞으로 모아 움츠린 듯한 모습이다. 머리는 신체에 비해 크고, 긴 상반신에 비해 무릎이 낮은 편이지만 무릎 폭이 넓어 자세에 안정감이 있다.

수인은 지권인으로, 주먹 쥔 오른손을 앞으로 돌려 검지를 세우고, 왼손으로 검지를 감싸 쥔 모습인데 일반적인 지권인과는 달리 손의 위치가 반대이다.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성된 전통적인 도상이지만 조선후기는 17세기 초반부터 1630년대 전반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⁵⁾ 범어사 비로전 불상이 지권인 도상의 유행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점은 조성시기가 17세기 전반일 가능성을 높게 해 준다.

5) 조선후기는 삼세불(비로자나불, 아미타, 약사) 혹은 삼신불(비로자나, 석가, 아미타/ 비로자나, 석가, (보관형) 석가) 도상형식의 주존불이나 혹은 협시불로 조성되었으며(정은우, 2007, 『朝鮮後期 彫刻의 對外交渉』, 『朝鮮後半期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pp.181~193쪽 참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양측에 보살을 둔 비로나자나삼존불, 그리고 독존 등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되었다.

연번	명 칭	연 대	크기(cm)	비고
1	경주 기림사 소조삼세불좌상	16-17세기	360/360/360	
2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14년	?	麿失
3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 삼세불좌상	1622년	117.5	
4	보은 범주사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471/509/492	
5	김제 귀신사 소조삼세불좌상	1633년 하한	293/313/291.5	
6	고창 선운사 목조삼세불좌상	1634년	266/295/256.5	
7	구례 화엄사 목조삼세불좌상	1636년	245/280/264.5	
8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상	1650년	81.5	



<그림 2>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 좌상(본존), 높이 124.6cm



<그림 3> 비로전 목조보살좌상 (우협시), 높이 108.0cm

나지막한 육계와 머리에는 큼직한 크기의 나발을 붙였으며, 분명히 구분되는 육계와 머리의 경계에는 작은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육계 정상에는 원통형 정상계주를 각각 두었다.

방형에 가까운 얼굴은 이마선이 넓으면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졌다. 턱 아래를 둥글게 깎아 부드러우며, 양 볼과 턱은 살이 없어 다소 밋밋하다. 둥근 눈썹에서 이어지는 삼각형의 오뚝한 코, 희미한 넓은 인중, 가늘고 긴 입술은 살포시 다물어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을 준다. 전체적인 인상이 1722년에 조성된 범어사 관음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매우 닮았다.

법의를 변형통견식으로, 오른쪽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편단우견으로 걸쳐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었다. 오른팔 위에 편

삼자락은 손목에서 크게 한번 접은 후 일정한 모양의 잔잔한 옷주름을 섬세하게 구사하였으며, 좌측 팔위의 옷자락도 오른팔의 옷주름 형태와 대동소이하다.

U자형의 법의 사이로 드러난 승각기는 가운데가 띠처럼 도드라져 있다. 양팔 위에 섬세한 옷주름과는 대조적으로, 배 위에는 크고 대담한 두꺼운 편삼자락과 대의가 드러나 있다. 이는 상반신이 긴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상과는 같은 양상이지만, 대의와 좌우 대칭을 이루는 작은 편삼자락이 다리 위까지 흘러내리는 진열의 표현기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양다리 사이에 펼쳐 놓은 얇은 군의자락은 가장 안쪽 옷 끝단이 S자형을 이루고 이와 이어진 다른 끝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특히 기년명은 없지만 진열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함양 안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옷주름 모양과 조각기법이 닮아 매우 흥미롭다.⁶⁾ 왼쪽 무릎 위 넓적한 소매자락은 가운데가 볼륨 있게 봉긋 솟았으며, 가장자리는 자연스러운 옷주름이 더해져 사실감을 더한다.

양측에 보살상은 신체비례나 관음전 불상과 닮은 인상은 본존상과 같다. 그러나 오른쪽 어깨 대의의 가장 안쪽 주름이 크고 뾰족하며, 깃처럼 강조해 모양을 낸 것이나 배 위에 'W'으로 흘러내린 편삼과 대의자락, 양 다리 사이에 3개의 주름으로 정리해 펼쳐 놓은 군의 등에서 본존상에 비해 간략화, 형식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연꽃가지를 들고 있는 양손은 아마타인으로, 우협시는 양손의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고, 손바닥을 위로 하여 왼쪽 무릎 위에 살짝 들었으며, 좌협시는 손 모양은 동일하지만 팔 위치는 반대이다.

6) 이희정, 2007, 같은 글, p.707쪽 도2~도5참조./ p.709쪽 도6~도9참조.

삼존상의 전반적인 양상은 단정하면서도 젊은 얼굴 인상과 상반신이 길지만 다리 폭과 무릎높이의 적당한 비례가 안정감을 준다. 특히 양팔 위에 섬세한 대의 옷주름과 균위자락의 부드럽고 유연한 표현은 배 앞에 크고 대담한 편삼자락과 대조되어 섬세함과 대담함, 강함과 부드러움이 적절히 조화롭게 표현되었음을 보여준다.

Ⅲ. 記錄에 보이는 삼존상의 造成과 重修

비로전 불상에 관련된 기록은 『梵魚寺誌』와 1722년 관음전 불상 대좌상면의 묵서명, 그리고 비로전 불상에서 발견되었다는 '도금 중수기'가 유일하다. 조선후기 불상에 봉안되는 복장발원문이나 중수도금기와 같은 기록물은 한지에 묵서로 적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로전 불상의 중수도금기도 이와 같은 체계일 것이나 전체적인 크기나 서체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매우 아쉽다.

우선 중수도금기 원문과 내용을 소개하고, 오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梵魚寺誌』 내용과도 비교·검토해 보겠다.

「東萊金井山梵魚寺毘盧佛三尊重修塗金記

原夫佛相之作始於于闐國王梅檀之造而作後世常住之福田故印土支那或之鑄以金雕之以木塑之以泥畫之以帛以爲群生瞻仰歸投之地正如因指會月卽樹占風不是眩神通於幻境實乃開方便於迷津則可謂因筌得魚卽事現理者也凡爲釋子者雖一錫杖之所莫不模相以安而崇奉之況於近千楹叢林者耶①梵魚寺左法堂所安毘盧佛三尊則崇禎十一年戊寅春禪德海敏發敬募募檀緣所成也則奚啻費十家之產耶勤力勞心力概可知矣奈深歲久金飛佛面彩脫眉間居過興嗟者有季適得古香徒僉員留脩之物財而事大物尠恒有未就之慮衆僉相議共謀重修無人主宰於是②嘉善興寶樞一山之規繩以

其有權德寬重立爲募緣之主通政彥聰敏老之雲仍惜其先師之功又有知因識果之能立爲別座山人思屹曾成通寺之天王與匠有舊爲召匠之請主而無爲幹善通政祖眼曉通事理方正有道爲監役之宰嘉善進悅應身湖南工於造佛之特立請爲重修之匠始役於康熙六十一年壬寅春三月告功於同季夏六月③其間亦不無削舊添新換拙成巧之功則所謂錦上添花而益勵專精者也崑然聖相左端右嚴燦爾神功光前續後是豈非功不浪施福不唐捐也且夫彌勒佛一尊改金亦在同時而故嘉善釋明學爲施金之檀越云壬寅六月初三日扇谷門人月嚴處機記

香海善印書

安養阿彌陀佛一尊

寂照庵觀音一尊

幹善思屹願佛彌陀會三尊之一時造成而各有主改茲不贅焉

毘盧佛 佛靈桶大施主比丘雲湜」

중수도금기 원문의 내용은 7) 다음과 같다.

“대저 불상을 만드는 시초는 우전왕이 전단나무로 만들었으며, 후세 사람들도 만들어 항상 복전(福田)에 모셔두었다. 인도지나에서는 흑 금 주물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조각하고, 진흙으로 모형하고, 비단으로 그림하여 중생들이 우리러 보고 귀의하는 곳으로 삼았다. 바로 손가락으로 달은 가리키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점치는 이런 것들이 신통하고, 현묘한 경지에 현황되게 함이 아니요, 이에 방편으로 혼미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함이니 말하자면 통발로 인하여 고기를 잡는 바로 이런 일의 현실적인 이치이다.

무릇 스님이 되려면 비록 한 번의 석장이 머문 장소라도 모상을

7) 중수도금기의 번역은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이신 김성균 위원님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봉안하여 송묘하고 받들지 아니한 곳이 없었거늘 하물며 천개의 기둥을 가진 총림일소냐!

범어사 왼쪽 법당에 모신 비로자나삼존불은 바로 승정 십일 무인년 봄이다. 선덕 해민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발하여 시주를 모아 만들었다면 어찌 열 집의 돈만 들었겠는가 힘쓰를 부지런히 하고 마음을 수고롭게 한 노력임을 대충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는 깊어지고 세월은 오래되어 금빛은 부처님의 얼굴에서 날아가고 채색은 미간에 탈색되어 드나들 적마다 가여운 생각을 가진 것이 몇 년이 지났다. 마침 옛 신도 몇 사람으로 부터 재물을 얻었지만 일은 크고 돈은 작아 항상 이루지 못할 염려가 있었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고 꾀하였으나 주재할 사람도 없었다. 이에 가선 흥덕은 이 절의 큰 스님으로 그 책임권을 주어 덕관으로 하여금 두 번째 모연의 주인으로 삼고, 통정 언충은 해민의 손자로 선사의 공덕을 애석히 여길 뿐 아니라 또한 인과가 능히 입증됨을 알았다. 별좌 산인 사흘은 일찍이 통도사 사천왕상을 조성할 때 장인과 잘 알아 그를 불러 말음을 청하고, 무위 간선 통정 조안은 사리를 밝게 통하고 방정하고 도리가 있어 감역의 주재로 삼고, 가선 진열은 응신호남인으로, 부처를 만드는 재주가 특별하여 청하여 중수의 장인으로 삼았다. 강희육십일 임인년 봄 삼월에 시작하여 같은 해 여름 유월에 일을 다 마쳤다. 그 동안에 옛 것은 삭제하고 새 것은 보충하고 웅졸한 것은 바꾸고,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있었기에 말하자면 금상첨화로 더욱 진정함을 힘쓰니 외연스러운 부처님의 왼쪽에 단정하고, 오른쪽에 엄숙하여 신공이 찬연하여 앞으로 빛나고 뒤에서 이어가니 이는 공덕이 헛되이 베풀지 않을 것이요, 복은 황당스레 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륵불 일존의 개금도 동시에 한 까닭은 가선 명학이 돈을 시주하였기 때문이다.

임인유월초 이곡문인 월엄 처기는 기문을 짓고, 행해 선인은 기문을 썼다.

안향암 아미타불일존

적조암 관음일존

간선 사흘의 원불 미타회삼존불을 일시에 조성하면서 각각 주불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여기에 군살 같아 기록하지 않는다. 비로불의 불영통은 대시주 비구 운식이 했다. ”

이 기록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梵魚寺誌』의 내용과 비교 검토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중수도금기 ①의 내용은 범어사 좌법당의 비로삼존불좌상은 崇禎十一 戊寅年(1638) 봄에 봉안되었다. 불상 조성은 禪德 海敏이 여러 사람의 시주를 모아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조선후기는 승이 引勸하고 시주를 받아 불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였는데 당시 해민은 시주를 권하고 이를 모아 집행하는 재정담당자 즉 화주소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해민의 역할은 1661년 범어사 대웅전 목조삼존상 조성발원문인 ‘佛像記文’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복장발원문의 맨 말미 緣化秩에 海敏은 幹善道人の 소임을 맡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⁸⁾ 간선도인이란 幹善衲子(人)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역시 대화주 혹은 화주를 의미하며⁹⁾ 대웅전 불상을 조성할 당시에도 역시 화주로 활약하였다. 그가 범어사 대웅전 불사에 화주로서 등장하는 것은 비로전 불상을 조성했던 경험을 토대로 대웅전내

8) 송은석, 2007,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505쪽의 발원문 참조.

9) 박은경, 2008, 「조선16세기 불화의 시주품목과 소임」, 『미술사 자료와 해석』, 일지사, p.177쪽.

전각을 정비하는 대대적인 불사에 소임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민의 생몰연대와 활약상, 범어사 내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비로전과 대웅전 불상 조성에 관여했던 시기가 그가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였을 것이다. 또한 2번씩이나 불상조성을 위한 돈은 집행하는 소임을 맡을 정도였다면 범어사내의 위치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민의 화주 소임에 관해서는 『梵魚寺誌』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海敏募緣成毘盧佛三尊而法堂之主佛三尊及毘盧殿三間皆以自財成…”이라 하여¹⁰⁾ 해민이 모연을 통해 비로전 삼불상, 대웅전 삼불상을 이루었으며, 특히 비로전 삼칸 건물은 자신의 재물로 이루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람들에게 인권하는 일 뿐 아니라 자신의 재물도 직접 내어 시주에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민이 불상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이유는 『梵魚寺誌』 ‘梵魚寺大雄殿佛像毘盧殿佛像香積殿石井曹溪門石柱四階石梯盖石桶記’의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해민과 그의 제자 찬심이 나눈 이야기 중에는 전각을 완성해 불상을 봉안하는 공덕이야 말로 세상에 열거하는 어떠한 선에도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해¹¹⁾ 해민은 불상 조성 공덕을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는 해민의 불교관이 밑바탕이었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10) 『梵魚寺誌』, ‘彌勒雕像重修記’, p. 47~48참조.

11) 「梵魚寺大雄殿佛像毘盧殿佛像香積殿石井曹溪門石柱四階石梯盖石桶記」
 “…老德海敏公與弟子嘉善大夫贊心謀曰經云人生丈夫出家佛法實皆難得今四難皆已得之何幸如之然所謂成就佛道嗚呼矣與爾俱違則造佛造寺有何不可人生百世來日無多如羊入屠步步趨死良可悲也即日盡傾所儲造大雄殿所安佛像金佛三尊又勸毘盧殿而同造毘盧金佛三尊其功其德非世所謂隨例之善也(下略)…” (『梵魚寺誌』, p. 51쪽 참조.)

비로전 불상의 중수는 1722년 봄 3월에 시작하여 6월에 걸쳐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호남승인 진열이 행했다는 내용은 『梵魚寺誌』¹²⁾, 범어사 관음전불상 대좌 상면에 적힌 묵서명¹³⁾, 「중수도금기」의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¹⁴⁾

비로전 삼존상 중수의 주역들은 興寶, 祖眼, 彦聰, 思屹 그리고 進悅이다. ②의 내용은 비로전 불상을 중수하는 동안에 그들의 소임에 관한 내용이다. 즉 범어사의 큰 스님인 흥보는 덕관을 모연의 두 번째 주인으로 삼았으며, 해민의 손자 언충은 스승의 업적을 이어 역시 화주의 역할을 담당했다. 감역의 주재로 조안을 삼고, 별좌 사흘은 이미 친분이 있던 조각승 進悅이라는 호남승을 청해 중수에 장인으로 삼았다. 이 기록은 『梵魚寺誌』도 동일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소임뿐 아니라 시주 내용과 그들의 업적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즉 “가선대부 흥보는 절 주지로 반천금을 시주하여 비로전 삼존상을 개금중수하였으며, 도감 통정대부 조안은 특출하고 무리중에 초월한 재주를 가진 자로 절의 모양을 갖추었다. 별좌 통정 언충은 해민의 손자로 선사 해민의 공덕을 따라 화주로 삼았으며, 사흘은 취서산 사람으로 불사를 듣고 천리를 지척으로 여겨 이에 동참하였다”¹⁵⁾고 하는 내용이다.

12) 「梵魚寺毘盧三尊重修改金兼金像觀音新造記」

“… 康熙六十一年壬寅八月湖月門人存覺書 毘盧三尊重修改金施主契中秩大玄… 緣化秩 證明宗敏 良工進悅 寬性 玉聰 淸愚淸輝 持殿 懶軒(下略) …” (『梵魚寺誌』, p. 56~57쪽 참조.)

13) “康熙六十一年季夏東萊梵魚寺 毘盧三尊重修奉安于毘盧殿 觀音菩薩二位新造奉安於 觀音 殿 緣化秩 證明比丘 宗敏 持殿比丘 仁淑 比丘 坦日 比丘 懶軒 金魚畫員 嘉善大夫 進悅 淸雨 淸徵 貫性 玉摠 …”

14) 화원명에 있어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오기의 가능성이 크며, 발원문에 미름의 오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15) 「梵魚寺毘盧三尊重修改金兼金像觀音新造記」 “…嘉善大夫興寶公也及一寺摠領之主也亦半千金許納重修改金毘盧三尊契中之座主亦如百金許納新造觀音一尊判廳之主員也都監通政大夫祖眼以拔華超群之材模樣一寺者也別座通政彥聰

무엇보다 비로전 불상 도금중수기는 비로전 불상과 관음전의 목조보살상이 닮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③은 중수전과 중수후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중수전 몇 해 동안 비로전 삼존상은 얼굴에 금빛과 채색이 탈락되어 있었으며, 중수 과정에는 옛 것은 삭제하고, 새 것은 보충하고, 웅졸한 것은 바꾸고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이로 보면 비로전 삼존상은 단순히 금빛과 채색이 탈락해 개금이나 개채만을 다시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침식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1722년 중수과정에서 관음전 불상과 닮은 얼굴과 인상으로 변모했던 것이 분명하며 비로전 불상에 어느 정도는 진열의 작품이 표현되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는 당시 중수 조각승 진열의 특징을 통해 비로전 불상과의 차이점을 다음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수도금기를 보면 1722년 범어사에 대대적인 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22년 관음전 불상 조성과 비로전 불상의 중수가 있었으며, 미륵전 불상도 1722년에 다시 개금되었다.¹⁶⁾ 또한 범어사 인근 암자인 안향암과 적조암, 그리고 사흘이 시주해 미타회 아미타삼존상이 조성되었다. 실제 1722년에 조성된 41.0cm의 소형 적조암 불상이 밀양 여여정사에 남아 있다(그

及已前重修改金大功德主海敏之孫弟也欲踵其先師之跡而執勞居最者也化主首座思屹及驚棲山人也見聞佛事則千里咫尺焉故亦來執勞於此事中自餘隨喜隨施引勸執勞者芳名具列于后以引諸后云爾……”(『梵魚寺誌』, p. 56~57쪽 참조.)

16) 미륵전 불상은 단순 개금과 개채만 이루어진 듯하다. 미륵전 불상과 닮은 불상이 전남 담양 용추사에 현존하는데(현재 백양사박물관 소장) 얼굴모양이나 이목구비, 법의 형식 등이 매우 유사해 같은 조각승이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것은 현지 조사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림6).¹⁷⁾ 이로 보면 중수도금기는 틀림없는 비로전 불상의 복장 기록물이며, 당시 중수 사실을 조목조목 다루고 있어 범어사의 연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다.

IV. 삼존상 중수내용과 조각승 進悅

현재까지 조각승 진열에 대해 알려진 바는 전라도와 경상도, 경기도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작품이 남아 있다.¹⁸⁾ 진열의 활동시기와 비로전 불상의 조성시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비로전 불상이 진열이 조성한 불상과 유사성을 보이는 이유는 앞 장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진열이 중수한 이후의 결과로 추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진열의 양식적 특징과 비교해 이전 요소와 새로운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비로전내 3구의 불상은 양식적 특징과 중수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구체적인 분석은 본존상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현재까지 기록과 조사를 통해 알려진 진열의 작품은 <표 1>과 같다.

<표 1> 진열의 조성작품

연대	지역	작업내용	조각승	원소장처
1695	무안 서고사	목조아난·가섭 및 나한상	性沈, 體遠, 敏性, 性印, 進悅, …	전주 서고사
1706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	進悅, 太元	전남 곡성 관음사 대은암
18세기 초	함양 안국사	목조아미불좌상과 목조보살좌상	進悅	

17) 2009년 9월8일 현지조사되어 경상남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8) 최선일, 2004, 앞글, pp. 171 ~ 193.

연대	지역	작업내용	조각승	원소장처
1713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 불좌상	進悅, 靈熙, 太元, 處林, 清徽	경기도 노적사 대응보전
1719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개금· 시왕개체	進悅, 太元, 玉楚 守英, 道眼, 熙遠 清輝, 就詳	전남 남평 운홍사
1720	부산 박물관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進悅, 太元, 日成 致尙, 處林, 清徽 寬性, 守英, 雲益 玉聰, 一湖, 影尙	전남 화순 만연사
1722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進悅, 清愚, 清徽 母大性, 玉摠	현위치
1722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 삼존상중수개금	進悅, 寬性, 玉聰 清愚, 清徽	현위치
1722	밀양 여여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進悅, 清愚, 清輝 寬性, 玉聰	寂照庵
18세기 전반	양산 통도사	사천왕상조성	進悅	
18세기 전반	제주 용문사	목조아미타불좌상	進悅	傳해남은적사

<표 1>을 보면, 진열은 중수도금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호남 승으로 전라남도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전라북도, 경기도와 경상도 등에도 그의 작품이 남아 있어 활동무대가 상당히 넓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의 생몰연대나 수련기간, 활동기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작품과 중수도금기의 내용을 보면, 범어사 불상보다 앞서 조성된 통도사 사천왕상, 1720년 화순 만연사 불상,¹⁹⁾ 1722년 범어사 불상 등 1710부

19) 부산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로, 자료조사에 가까이 응해주신 박물관측과 양

터 1722년 까지 활동이 집중되어 이 시기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기간으로 볼 수 있겠다.

그가 조성한 불상<그림 4> ~ <그림 6>은 공통적으로 방형의 상반신, 부드러운 얼굴과 명랑한 인상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깃처럼 강조된 대의자락이라든지 배 앞에 작은 편삼자락이 다리 위로 흘러내린 모습 등으로 표현되었다. 무엇보다 군의 자락이 S자형을 이루거나 곡선, 혹은 직선으로 내려오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는 점은 다른 조각승과는 차별화된 특징이다. 즉, 진열은 17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따르면서도 신체비례라든지 얼굴과 인상, 옷주름의 변화 등에서 그의 개성을 유감없이 표현해 내고 있다.



<그림 4> 전남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1706), 상고 66.7cm, 진열작



<그림 5> 경기도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1713), 상고 41.0cm, 진열작



<그림 6> 경남 밀양 여여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1722), 상고41.0cm, 진열작

그러나 진열의 불상과 닮은 인상을 가진 비로전 불상은 신체 비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비로전 불상<그림 7>은 긴 상반

신에 허리를 세우고 어깨로부터 서서히 구부린 자세이며, 어깨가 좁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탓인지 움츠리고 있는 듯하다. 이에 반해 진열이 조성한 불상은 방형 신체에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자세이며, 가슴과 배가 양감없이 평판적이다 (<그림 8>, <그림 9>).



<그림 7>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상 (본존), 상고 126.4cm, 1722년 진열중수



<그림 8> 부산박물관 소장 조아미타불상 (1720), 상고54.0cm, 진열작



<그림 9>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상(1722), 상고102.8cm, 진열작

상반신에 대한 다리 폭, 혹은 어깨 폭 등 전체적인 신체 비례는 불상을 조성하기 이전인 도안 단계에서부터 결정되므로 변화를 주기 어렵다. 조선후기 불상이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면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진열의 작품을 보더라도 방형의 상반신에 허리를 곧추 세우고 머리를 약간 숙인 자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비로전 불상의 신체비례에 따른 외형적인 차이는 곧 비로전 불상이 다른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요소라 하겠다.

다음은 머리와 얼굴, 법의의 세부이다. 우선 머리와 얼굴을 보면, 가장 중수의 흔적이 두드러진다.



<그림 10>범어사 비로전 본존상(1722), 진열 중수



<그림 11> 함양 안국사목조여래좌상 (18세기 전반), 진열작추정



<그림 12> 함양 안국사 목조관음보살좌상(18세기 전반), 진열작추정

비로전 본존상은 육계와 머리에 경계가 있다.<그림 10> 이에 반해 진열이 조성한 1720년 작인 화순 만연사 목조아미타불좌상(<그림 8>), 1714년 고양 상운사 목조여래좌상, 함양 안국사 목조여래좌상(<그림 11>)은 육계와 머리의 구분 없이 육계가 상당히 높다. 보살상의 경우도 포탄형 같은 머리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12>).²⁰⁾ 더욱이 머리와 육계에 부착된 나발은 감

20) 진열이 조성한 보살상은 연대가 빠를수록 머리의 상단이 높게 솟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1706년 곡성 서산사 보살상의 머리가 가장 올라와 있으며, 함양 안국사 보살상도 높은 편에 해당한다. 1722년 범어사 관음전 불상은 이보다 낮은 형을 이루고 있어 표현기법에 있어 숙련기에 들면서 보다 안정된 모습으로 불상이 변모됨을 알 수 있다.(『곡성군의 불교유적』, 2003, 국립광주박물관, pp. 163~167. 그림참조)

탕법으로²¹⁾ 입자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 부착한다. 결손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만을 다시 제작해 넣는 것이 일반적인 수리방법으로, 여러 번 중수를 거치더라도 나발을 붙인 전체적인 머리형에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어사 관음전 불상과 비슷한 인상을 주는 얼굴은 양상이 좀 다르다. 비로전 불상은 이마선이 넓으면서 턱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그림 10>)으로 양 뺨에 살이 없이 밋밋하고, 턱의 볼록함도 적다. 이에 반해 고양 상운사 목조여래좌상, 함양 안국사 목조여래상(<그림 11>) 등 진열이 조성한 불상은 이마선과 얼굴 폭이 거의 비슷한 방형 얼굴(<그림 12>)에 양 뺨과 턱이 볼록하여 비로전 불상과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이로 보면 비로전 불상과 진열이 조성한 불상의 닮은 인상은 얼굴형에서 기인되었기보다 이목구비의 수정에서 나온 것은 보인다. 그림 10과 11을 비교해 보면, 비로전 불상의 부드러운 눈썹선과 반개한 눈, 삼각형의 코와 넓은 인중, 입술 양측을 눌러 입가에 미소를 짓는 특징은 진열의 불상에서 보이는 이목구비 특징과 닮았다. 비로전 불상의 밋밋한 얼굴은 이러한 수정과정에서 양감이 줄었을 것이며, 역시 밋밋한 눈두덩이 부드러운 눈썹선과 눈 모양, 코 형과 높이, 인중 등도 높은 곳은 깎고, 작은 것은 크게 하는 수정의 결과 진열의 불상과 유사한 인상이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열은 다른 조각승과 달리 불상 중수에서 매우 주목되는 인물로 보인다. 중수의 결과 비로전 불상과 마찬가지로 얼굴형과 인상에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하나 불상이 있어 주목된다.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香巖에 의해 1565년에 조성

21) 정은우, 2008, 「龍門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특징과 원문분석」, 『미술사연구회』제25호, 미술사연구회, p.107쪽 참조.

되고 1719년 進悅에 의해 중수되었다.²²⁾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상(<그림 14>)은 향엄에 의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둥근 방형의 얼굴에 멧멧한 눈두덩이와 양 뺨, 눈썹에서 이어지는 몽통한 코와 넓은 인중 그리고 입술의 양가를 누른 듯한 입술모양 등이 진열이 조성한 불상(<그림 15>)의 얼굴 특징과 닮아 있다.

조각승 향엄이 조성한 불상은 목포 달성사 불상 이외 제주 서산사에도 1구가 봉안되어 있다.²³⁾ 두 불상은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음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상과 표현기법을 보여준다.



<그림 13>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1565), 향엄작 進悅 重修(1719)



<그림 14>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상(1722), 진열작



<그림 15> 제주 서산사목조보살상(1534), 향엄작

22) 成春慶, 2000, 「達聖寺木造地藏菩薩 및 阿彌陀三尊佛」, 『文化史學』14, 한국문화사학회, pp. 71~73.

23) 제주도 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제주불교문화자료집』, pp.34~39쪽/ 조선전기 조각승 香嚴에 관한 글은 송은석, 2007, 같은 글, pp.35~36 : 김광희, 2006, 「朝鮮前期 菩薩像 研究」,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 112~113쪽.

향엄의 두 불상을 비교하면(<그림 13>, <그림 15>), 턱이 둥근 부드러운 방형의 얼굴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은 통통한 뺨, 눈꼬리가 올라간 눈매, 편평한 콧등이 높고 좁으면서 아래로 갈수록 콧방울 폭이 넓어지는 사실적인 코의 표현, 좁고 선명한 인중, 침울해 보이는 인상이 특징적이다. 반면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상은 가는 수평의 눈매, 뚱뚱한 코, 넓은 인중과 미소가 있는 청년과 같은 밝은 인상 등 많은 차이가 있다. 결국 두 상의 차이는 목포 달성사 불상이 1719년 진열이 중수하는 과정에서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범어사 비로전 불상도 목포 달성사 불상과 마찬가지로 뺨과 눈, 코, 입 인중을 다시 깎아 진열의 특징적인 인상으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38), 법의세부



<그림 17> 전남 곡성 서산사목조관음보살좌상(1706), 진열작



<그림 18> 경기도 고양 상운사 목조여래좌상(1713), 진열작

비로전 불상과 진열의 양식적인 차이는 편삼과 대의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비로전 불상(<그림 16>)의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대의는 끝단이 물결모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데, 1650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²⁴⁾이나 1651년 서울 봉은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등 17세기 중반 불상에서도 종종 표현되는 형식으로 비로전 불상의 대의 특징이 17세기 중반까지도 이행됨을 보여준다. 또한 비로전 본존상은 왼쪽 어깨를 덮은 대의가 팔꿈치까지 내려와 끝단이 수평으로 이어져 있다(<그림 19>).

이에 반해 진열은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의 가장 안쪽 한 자락만 깃처럼 강조하고(<그림 17>, <그림 18>), 왼쪽어깨 대의는 팔꿈치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측면도 ‘人’형으로(<그림 20>) 비로전 불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19>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38) 범의세부



<그림 20> 부산박물관소장 목조아미타불좌상 (1720) 범의세부, 진열작



<그림 21> 구례 화엄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36), 청현작

범의 표현은 조각승마다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1638년 작인 비로전 불상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1636년 청현작인 구례 화엄사 대웅보전 목조 비로자나불좌상²⁴⁾에서는 대의가 왼

24)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 p. 526쪽 21사진참조.

팔을 덮으면서 측면에 ‘오’으로 끝단이 이루어져 있어(<그림 21>) 비로전 불상과는 차이가 있다.

비로전 불상의 편삼(<그림 16>)표현도 역시 진열의 특징과는 다르다. 배 앞의 편삼자락이 대의 밖으로 넓고 크게 드러나 있는 반면, 진열작의 불상(<그림 17>, <그림 18>)은 공통적으로 대의와 대칭을 이루는 작은 편삼자락이 다리 위까지 흘러 내려 있다. 더욱이 진열의 작품에는 얇은 듯한 법의 두께가 상하 동일하게 유지하는 반면 비로전 불상은 하반신이 상반신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얇으며, 진열의 작품과 비교해도 얇은 수준이다. 이는 곧 비로전 불상에 군의가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22> 범어사 비로전 목조 비로자나불좌상(본존) 군의세부



<그림 23> 함양 안국사 목조 보살좌상군의 세부

비로전 불상의 군의 특징은 신체에 밀착되어 얇고, 군의 주름의 유연함과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 발목에서 내려오는 군의 자락은 오른쪽은 4개과 왼쪽은 2개로 정리되었으며, 발목아래 가장 안자락이 S형을 이룬다(<그림 22>). 이와 같은 군의 특징은 진열작으로 추정되는 함양 안국사 목조보살좌상의 군의와 비교된다.

25) 이희정, 2005, 「조선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 제3집, pp. 166~169.

함양 안국사 상이 다소 유연함은 결여되어 있지만²⁶⁾ 양다리 사이에 균의를 펼쳐 놓은 모양이나 안쪽 자락의 끝단이 S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닮았으며, 왼쪽 무릎의 넓적한 소매 자락 또한 유사하다(<그림 23>). 즉 함양 안국사 불상과 동일한 균의 모습은 중수의 결과로 생각되며, 지나치게 얇은 균의와 유연한 주름도 원래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진 균의로써 중수과정에서 얇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비로전 불상의 수정 내용을 정리하면, 신체비례, 머리모양, 얼굴형, 상반신 법의 모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 목구비는 수정되어 진열의 특징적인 명랑한 인상으로 변화되었으며, 진열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얇은 균의 역시도 중수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는 곧 진열의 중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원 조각승의 조형성은 흠뜨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특징을 자연스레 부각시키고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범어사 비로전 삼존상은 중수도금기에 기록되었듯이 1638년에 조성되어 1722년에 중수되었는데, 옛 것은 삭제하고, 새 것은 보충했으며, 웅졸한 것은 바꾸어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외연한 부처님의 오른쪽은 엄숙하고 왼쪽은 단정해졌다. 이것이 바로 비로전에 봉안된 삼존상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진열의 개금중수는 단순히 다듬어 개금하여 마무리하는 조선 후기 조각승들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불상을 변화시키는 중수

26) 함양 안국사 불상은 범어사 비로전 불상에 비해 부드러움과 유연성이 떨어져 18세기초 작품으로 추정된다.(이희정, 2007, 같은 글, p.723)

방식이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로전 불상을 통해 보면 불상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작가적 역량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더욱이 비로전 불상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조선후기 중수 유형을 살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비로전 불상과 같은 중수 사례가 많지 않아 분석에 있어 다소 부족하였지만 중수 유형이 다양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으며,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梵魚寺誌』, 『通度寺誌』
- 梵魚寺聖寶博物館, 2002, 『梵魚寺聖寶博物館 名品圖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제주불교문화자료집』.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 『한국의사찰 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b), 2002,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 제주도.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c),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북도.
-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범어사소장 전적 및 유물』 학술조사보고서.
- 김광희, 2006, 「朝鮮前期 菩薩像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명대, 2007, 「17세기 전반 현진파의 성립과 지장암 목 비로자나불 좌상연구」, 『강좌 미술사』 제29호
- 박은경, 2002, 「禪刹大本山 梵魚寺 소장불교미술품 - 高僧眞影의

- 현황과 특징」, 『考古歷史學誌』제17·18합집, 동아대학교박물관.
- _____, 2008, 「조선16세기 불화의 시주품목과 소임」, 『미술사 자료와 해석』, 일지사.
 - 成春慶, 2000, 「達聖寺木造地藏菩薩 및 阿彌陀三尊佛」, 『文化史學』 14, 한국문화사학회.
 - 송은석, 2004, 「17世紀 彫刻僧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美術資料』 70·71호, p.86 도 23참조.
 - _____, 2007,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박사학위 논문.
 - 이희정, 2007, 「咸陽 安國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東亞文化』 2·3號,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 _____, 2005,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 제3집, 불교미술사학회.
 - 정은우, 2008, 「龍門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특징과 원문분석」, 『미술사연구회』제25호, 미술사연구회.
 - 최선일, 2004,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僧 進悅」, 『美術史學研究』244, pp. 171~193.
 - _____, 2006,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투고일	심사일	심사완료일
2009. 10. 31	2009. 12. 3 ~ 7	2009. 12. 15

【국문초록】

부산 범어사 비로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보살상 2구는 1722년 진열에 의해 조성된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얼굴,

인상 등이 매우 닳아 중수과정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수 도금기에 의하면 비로전 삼존상은 1638년에 조성되었으며, 이를 조성토록 주관한 이는 승 해민(海敏)으로, 1661년 범어사 대웅전 목조삼존상조성에 참여해 화주의 소임을 다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80여년이 지난 1722년 비로전 불상 중수에 참여한 이들도 해민의 제자들로 그의 자취를 따라 불상을 중수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중수과정에 불상의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적고 있는 내용이다.

중수에 참여한 조각승 진열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활동해 그의 작품이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전국에 남아 있으며, 도금 중수기를 통해 인근 통도사 사천왕상을 조성한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비로전 불상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중수 이후 변화된 특징을 살펴보았다. 긴 상반신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는 구도와 신체비례는 조성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정삼각형의 구도, 방형 상반신을 신체비례를 구사하는 진열의 작품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관음전과 불상과 얼굴의 유사성은 이마, 코, 양 뺨, 턱의 볼록함을 수정하여 범어사 관음전 불상과 같은 인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수의 특징을 진열의 개성이라 추정되는데 1565년 향엄(香嚴)이 조성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도 1719년 進悅의 중수에 의해 범어사 관음전 불상과 닳은 얼굴형과 인상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하반신의 군의 주름 형태도 진열이 조성한 함양 안국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주름모양과 동일하며, 법의 두께 등 상·하반신의 조각수법이 다른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범어사 비로전 삼존상은 중수도금기에 기록되었듯이 옛 것은 삭제하고, 새 것은 보충했으며, 웅졸한 것은 바꾸어 좋은 것으로 만들

었다. 즉 비로전 불상은 이를 조성한 조각승의 조형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이목구비와 군의 등의 표현에서 조각승 진열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배어난다.

비로전 불상은 원래의 조형성이 돋보이기 보다는 조각승 진열의 특징이 더욱 드러나 진열의 작가적 역량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한다. 더욱이 개금하고 외형적인 변화가 없는 조선후기 중수의 유형과도 차별화되어 비로전 불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게 한다.

핵심주제어 :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상, 도금중수기, 진열, 향엄

【Abstract】

Study on the Repairs of the Sedentary Wooden Statue of Vairacana Buddhist Triad in Birojeon (Building), Beomeosa(Temple)

Lee, Hee-jung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Appraisal

The Sedentary statue of Buddhist triad in Birojeon, Beomeosa was created in 1638, and repaired in 1722, as written in the Joongsoodokeumgi(Documentary book Written about repairs and gold foil works for the statue) which presents the facts that the old ones were emitted, the new ones were made over, and the

artless ones were changed with the artistic ones.

The Buddhist statue is featured with not only keep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ue of 17th century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a sculptor monk(s) working in 18th Century with expressions of the faces such as eyes, noses, mouths etc. and the Goonyi (Skirts)

Concerned with the repair method of its display rack, there is a difference with display racks of the second half of the Choseon Dynasty, which was used to be painted or gilded with gold in general before sculptor monks to finalize works during that period. We don't know the reason why the sculptor monk(s) adopted the his(their) own repair method. However, we can guess that he or they seemed to be considered a distinguished skillful monk(s) or the monk(s) would be placed an order by the temple with unique artistic flavor, etc.,

The Sedentary wooden statue of Vairacana Buddhist triad in Birojeon, Beomeosa was not only the artistic masterpiece which is enable us to trace back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ue repairs in the second half of the Choseon Dynasty also showing the figurative harmony between the statue and its display rack.

Key words : Birojeon Beomeosa, wooden statue of Vairacana Buddhist triad, Joongsoodokeumgi, Jinyeol, Hyangeom.